대흥사 주지후보에 법상 스님

71표 중 66표 얻어… "교구 내 화합 중시"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해남 대흥사 주지에 법상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해남 대흥사는 6월 26일 경내 보현전에서 본사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를 열고, 법상 스님을 제23대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정상 스님(대흥사 주지 직무대행)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 선거에는 산중총회 구성원 93명 중 71명이 참여했다. 법상 스님은 66표를 얻었으며, 경쟁후보였던 법조 스님은 4표를 얻었다. 무효는 1표.

법상 스님은 당선소감을 통해 "선거를 통해 많은 대덕스님들과 화합의 시간이 됐다"며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스님상은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교구스님들과 산중화합을 중시하면서 교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상 스님은 1992년 은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03년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 호법과장, 포교원 신도국장, 무안 법천사 주지, 대구 안일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대흥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핵심보직 친인척관계 방지 강화

진각종 종의회, 임시회서 종헌 · 종법 개정

진각종 前총인 회정 정사와 그의 아들로 인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진각종이 핵심보직간의 친인척 관계 방지를 위해 종법을 개정했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관천)는 6월 20일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417회 임시종의회를 열고, 종헌과 종법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원장 · 종의회의장 · 현정원장 · 교육원장 · 회당학원 이사장의 겸직불가 조항에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했다. 또한 '통리원장 · 종의회의장 · 현정원장 · 교육원장이 4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될 수 없다' 는 조항에 총인과 회당학원 이사장,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추가했다.

임시회서는 총인 선출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오는 7월말까지 현행 규정대로 총인 추대위원회서 차기 총인을 추대해야 한다. 아울러 종의회는 '교육원장은 총인이 추천해 종의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는 규정을 '종의회에서 선출' 하기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현정원장 역시 '종의회에서 선출해 총인이 임명한다' 는 내용을 '종의회에서 선출' 키로 하면서 총인이 갖는 권한을 사실상 축소했다.

윤호섭 기자

"캄보디아 아이들과 특별한 교류"

종단협, 남방교류사업 일환으로 씨엠립 방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는 6월 19~24일 한국전통문화 남방교류사업 일환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했다. 단장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과 천태종 · 진각종 등 회원종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30여 명으로 꾸려진 방문단은 첫날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순례하고 씨엠립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왓보사원을 참배했다. 왓보사원에는 왕실 고문인 핀셈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방문단은 둘째 날 로터스월드 씨엠립지부(지부장 선문) 아동센터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 약 200여 명의 어린이들과 미니운동회 · 한국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했다.<사진> 운동회는 바구니 공 넣기를 시작으로 포대자루 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투호 등의 경기가 진행됐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단주 만들기, 연꽃컵등 만들기, 에코백 그림 그리기, 다보탑 · 석가탑 모형 만들기 등이 마련됐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당선

6월 27일 단독후보로 무투표… 임기 즉시 시작



총무원장에 당선된 호명 스님(사진 왼쪽)과 중앙선관위원장 월봉 스님. 편백운 스님 측이 집회 신고를 내면서 총무원 청사 앞에 경찰들이 배치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호명 스님이 6월 27일 무투표 당선됐다. 호명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인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앞 이면도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봉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당선증 즉시 임기가 시작됐지만 전임 집행부인 편백운 스님 측이 총무원 청사 출입을 막아 공식적인 행정업무를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태고종 총무원사 앞은 편백운 스님 측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인원이 몰리면서 혼잡을 빚었다. 이면도로 집회신고를 편백운 스님 측에서 가장 먼저 하면서 중앙선관위의 당선증 교부식은 경찰벽을 사이에 두고 치러졌다. 행사에는 중앙선관위원장 월봉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 등 1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호명 스님은 제27대 총무원장 당선증을 받은 뒤 종단화합을 위해 편백운 스님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호명 스님은 "종단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였다. 과거에도 어려운 시기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누란의 위기는 어두운 터널을 대하듯 막막하기만 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숱한 어려움을 이겨 왔듯이 태고종의 저력은 엄중한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명 스님은 이어 "이번 선거는 전임 집행부의 지속적인 선거 방해에도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의 안정을 염원하는 대중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납은 조속한 종단 안정과 종도화합, 종단 위상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편백운 측서 청사 출입 막아
길거리서 당선증 수여식 개최
호명 스님 "화합 위해 대화"
편백운 스님 "인수인계 없다"

새 총무원장 선출에 태고종 원로회의도 환영입장을 표명하며, 종단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해동불교대학장 대은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호명 스님은 많은 행정경험을 갖추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지키는 스님으로서 어려운 종단은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 평가받는다"며 "태고종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종도여러분이 원력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호명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사 출입을 위해 섣불리 접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명 스님은 "편백운 스님과 끝까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겠지만 먼저 화합을 전제로 접촉하겠다. 편백운 스님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당선증 교부식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호명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불신임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호명 스님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결코 인수인계란 없다. 제26대 집행부는 합법정통이기에 종무행정 정상화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종단과 종도의 피해를 감안해 합리적인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편백운 스님이 앞서 제기한 선거중지가처분에 대해 6월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가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북교착상태, 외부요인 기대 말아야"

민추본, 정책기획위 집담회
민간교류서 불교역할 모색



조계종 민추본 정책기획위원들이 남북교류를 위한 불교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한과의 3차 회담을 희망하는 등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불교계가 민간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는 6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서 '남북교착국면에서의 민간, 불교의 역할' 을 주제로 정책기획위원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낙관을 전망하긴 어렵지만 불교계가 단순한 민간지원이 아닌 사회여론 환기와 남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것들이 과거처럼 물량지원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북한은 현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스탠스가 어떤가를 문제 삼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의 민간역할도 달리 생각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교류가 한계가 있기에 민간차원에서 사회여론을 형성해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대북제재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한 민간지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불교계가 외부요인에 기대 일을 풀어나가려 하면 결국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질성 회복이나 평화통일과 같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중심으로 교류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과거 만해 스님 신계사 다례재처럼 남과 북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 성철 스님이 수행하셨던 북한사찰을 순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는 "현재 남북관계가 냉온탕을 오가는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진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정부도 민간 대북교류를 제어하기보다는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추본도 금강산 방문을 적극 추진해 경색된 관계를 풀어가는 촉진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담회에는 본부장 원택 스님을 비롯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권영경 前통일교육원 교수,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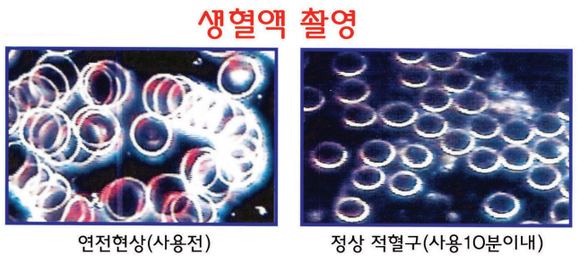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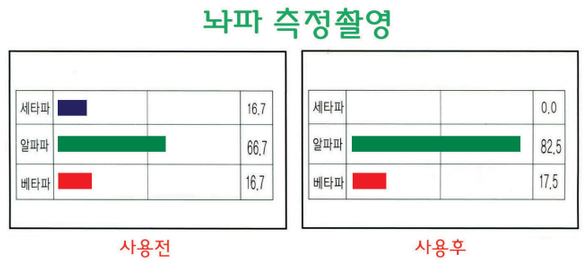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